



201707



Family



# 해결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7년 7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경영메시지
- 06 **Focus** | 박구원 사장, 중앙대서 강연 외
- 10 **청백리** | '청백리' 청렴연수 실시 외

**&And** 나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8 **우체통** | 의미가 담겨있던 경북내륙 산업연수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8 **신성장지도** | 태고의 신비가 간직된 제주 동부 일주
- 34 **Storytelling** | 보리 흉년에 윤5월이 겹치니 농사짓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심하다
- 36 **생활과 과학** | 물 부족 문제, 맨그로브·딱정벌레에서 답을 찾다!
- 38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40 **KEPCO E&C NEWS** | 2017년도 제1차 Meister of Engineers 선정 외
- 42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외
- 44 **인포메이션** |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46 **Poem** | 받아쓰기 시험
- 47 **에코포토** | 소중한 존재



통권 426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7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 우리 삶의 터전, 한기를 굳건히 지켜냅시다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7월의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목말랐던 대지를 장맛비가 적셔주면서, 타들어가던 농심도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입니다. 여름이 더욱수룩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올 여름, 건강하게 나길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의 역사적인 퇴역(退役)의 여운(餘韻)이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한기의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우리는 설립이래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성공기업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크게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에너지 기술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아감에 있어서, 향후 몇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제일 당면과제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더욱 정교하고, 튼튼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와 관련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창의적이고 한 차원 높은 집중력으로 성장동력을 재창조합시다.

탈원전(脫原電) 정책(政策)은 국민적 합의라는 큰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기는 이번 기회를 탈원전 패러다임(Paradigm)에 부응하는 새로운 원전산업의 확대와 개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선 탈원전과 안전(安全)이라는 정책 키워드(Keyword)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냅시다. 원전체계의 기술, 경험, 인력의 조합, 그리고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한기의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원전안전(原電安全) 관련사업과 미래형 원전 사업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냅시다.

### 둘째, 위기에 대응한 관리역량은 더욱 세련(洗練)되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니즈(Needs)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창조적이며 탄력적인 성장역량의 확충에 더욱 집중합시다. 한기의 조직과 인력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문성과 몰입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열릴 에너지신산업(新產業)에 대응한 조직과 인적역량 확보도 시급히 완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훈련은 시장과 기술변화에 창조적인 대응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과학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원전기술 확보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성과 타성은 인재중심의 한기가 가장 먼저 배격해야할 비효율 요소임을 명심합시다.

### 셋째, 한기인으로서 보다 높은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도 함께 높여갑시다.

돌아보면, 우리 한기는 지난 41년의 여정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또 한번 새롭고 희망찬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직원들의 긍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 구축에 노사 모두 합심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도 사장(社長)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직원에 걸맞는 책임감과 긍정적 사고를 갖추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책임감과 진심으로 이해시키고, 독심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역사회로부터도 뜨거운 연대의 힘이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인재를 키우고 존중하는 한기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합시다.

한기는 창립 초기의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인재제일의 든든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습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중한 인재로 육성하고 존중해 나가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용장(勇將)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서 한기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말고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함께 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자세로서 호사우보(虎視牛步)의 마음가짐을 당부드립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살피되, 황소의 발걸음으로 신중하고 끊임없이 길을 간다”는 말처럼, 치밀하고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며,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이라는 이름과 함께 신념과 긍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봅시다. 삶의 터전인 한기를 굳건히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3일  
사장 박 구 원

# 박구원 사장, 중앙대서 강연

- 차세대 엔지니어링 인재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박구원 사장이 6월 13일 중앙대학교 CEO 초청 세미나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을 통해 생각해 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대학원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생활 속의 에너지 △한전기술의 태동과 역할 △엔지니어링 산업 △신기후체제와 원자력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박구원 사장은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기술 습득,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 융합상품 개발 등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고효율 저탄소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Mix)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역할을 전망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엔지니어링은 기술의 융합과 연결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한전기술의 에너지분야 엔지니어링 기술과 경험이 신에너지, 에너지 절감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구원 사장은 '교양'과 '전문지식'의 균형을 갖춘 차세대 엔지니어링 인재로 성장할 것을 주문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준(準)감사인 위촉식 개최

회사는 6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이동근 상임 감사님을 비롯한 감사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準)감사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28일 도입한 '준(準)감사인 제도'에 따라 준(準)감사인 15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준감사인 제도는 재무/계약, 인사/노무, 기술, 정보 ICT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직원을 위촉하여 감사인에 준하는 사명감으로 감사활동과 청렴문화 선도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준감사인 강령선서 낭독과 준감사인 상호간의 청렴토크 등이 진행되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준감사인 여러분이 감사인과 동등한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가 공기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청렴도 향상은 물론 지속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회사는 준감사인 제도를 통해 반부패 청렴활동을 선도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사렉스(SAREX) 사용자 그룹 회의 개최

- 최신 버전 신규기능 설명과 향후 개발 방향 논의

회사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사렉스(SAREX : Safe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룹 회의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했다. 우리 회사는 2001년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소프트웨어인 사렉스를 개발하여 국내 6개, 해외 2개 기관에 판매했으며, 21개의 국내외 교육기관, 규제기관, 해외자문기관 등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회의는 사렉스 최신버전 1.3에 대한 신규기능 설명, 소프트웨어 개발방향, PSA 기술 현안 등을 토론허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원사인 미래와 도전을 비롯해 액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 5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회사는 매년 사렉스 사용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2명이 수료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사렉스 관련 사용자 그룹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기능 홍보를 통한 추가 판매 촉진과 국내외 경쟁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 신입사원 필기전형 실시

-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지방 지원자 위해 김천시에서도 필기시험
- 수도권 중심의 선발전형, 지방으로까지 확대 시도

회사는 지난 6월 3일 2017년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필기전형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했으며 평균 7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전형은 지난 5월 25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1,157명을 대상으로 서울 잠실고등학교와 회사 소재지인 경북 김천시 울곡고등학교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특히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지방 지원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희망자 407명(35%)은 김천시 울곡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회사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실시했던 선발전형을 본사 소재지인 김천혁신도시로까지 확대 시도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필기전형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필기, 인성검사 등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필기전형 합격자는 12차 면접을 거쳐 7월중 인턴사원으로 임용되며, 약 2개월간의 인턴근무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환절차를 거쳐 정식 채용된다. 회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절차를 적용하여 원자력, 기계, 전기, 전자/계측제어, 전산, 인간공학/산업공학, 토목, 지질, 기상, 소방, 안전 등 기술연구 분야와 사무 분야 등에서 직무역량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본사 소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인재 등을 전형에서 우대함으로써 지방 우수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청백리’ 청렴연수 실시

– 선현의 발자취 통해 청렴과 선비정신 되새겨 –



회사는 지난 5월 17일 경북 안동에서 ‘청백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윤리경영 종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청렴윤리 문화를 선도하는 청렴 인재상인 ‘청백리’ 우수직원과 청렴인상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 직원들은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하여 ‘보물은 오직 청백’이라는 유훈을 지킨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문중유물 특별전을 관람했다. 이어 조선의 대표 유학 자이자 청렴 표상인 퇴계 이황 선생의 종택과 묘소를 방문하고, 퇴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도산서원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선현의 청렴과 선비정신을 되새겨 보며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박구원 사장은 출발전 격려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조들의 청렴정신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스로를 겸손하

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 특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온라인 청렴윤리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렴윤리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항목들을 청렴윤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실시 및 반부패청렴 수기 공모 등을 통해 자발적인 직원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 전력그룹사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윤리 문화 정착 도모 –



‘2017년도 제3차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가 우리 회사에서 열렸다.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는 한전, 한수원, 발전회사 등 12개 전력그룹사간 감사업무 및 청렴윤리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동의 발전 도모를 위해 매월 실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근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한수원 남주성 상임감사, 남동발전 최상화 상임감사, 남부발전 유구현 상임감사, 서부발전 박대성 상임감사, 중부발전 김선우 상임감사, 한전KDN 문상욱 상임감사,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 한전원자력연료 조은숙 상임감사, 한전산업개발 김동기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그룹사 공동의 감사현안에 대한 토의와 한전기술의 청렴 윤리 추진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각 그룹사별로 역점 추진사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력그룹사 공동의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의회를 주관한 이동근 상임감사와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박대성 회장(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전력그룹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윤리 문화 정착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2017년도 중점추진 목표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감사원 자체 서면평가 A등급’ 달성을 선정하고 청렴윤리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렴윤리 특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온라인 청렴윤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청백리 정취를 따라 예향의 도시 안동을 걷다

초여름의 초록이 기분 좋게 내려앉은 5월 17일 제1회 청백리 연수의 대상자가 되어 안동을 방문하게 되었다. 안동으로 떠나기 전 사장님께서 당부하신 청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버스에 올랐다. 차창 너머 밝은 햇살을 바라보며 처음 방문하게 되는 안동에 대한 기대와 상상으로 즐린 눈을 비비며 두 시간을 달렸다.



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획전시로 안동김씨 보백당 문중에서 기탁한 '보물은 오직 청백뿐' 특별전이 전시되고 있었다. 안동김씨를 대표하는 보백당 문중의 정신은 '청백'으로 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기 위하여, 벼슬에서 물러나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집에는 별다른 보물이 없으니 오직 청백만이 보물'이라는 유훈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청백'을 유훈으로 삼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명문가의 모습을 접하며 예나 지금이나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리의 유혹에 노출되며 그것을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퇴계 이황선생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곳 도산서원

안동 간고등어와 찜닭으로 허기를 달래고 오후에는 드디어 말로만 듣던 도산서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전날 비 예보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뜨거운 태양이 안동호에 살짝 내려앉으며 유교성지의 절경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사실 지금의 안동호는 댐 건설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고운 모래입자 가득한 작은 시내가 흘렀다고 한다. 이중환 선생이 「택리

###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박물관

오전 11시경 안동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유교문화의 본원지답게 유교문화박물관에는 다양한 유교 관련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양반 문중이 기탁한 문화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탁이란 기증과 비슷하지만 증여가 아닌 말 그대로 위탁의 의미로 맡겨 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흥원에 관리를 맡기고 소유권은 여전히 문중에 있다는 의미이다. 문중의 소중한 가보와 문화재를 관리기술이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 여러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성실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소하지만 참신한 문화재 공유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보물은 오직 청백뿐' 특별전

박물관에는 시대별로, 사상별로, 테마별로 다양한 유교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우리들이 유교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 뿐 아니라 양명학과 실학까지 유교 문화의 긴 시대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전시



우리집에 보물이란 없으니  
오직 청백뿐이다

우리집에 보물이란 없으니  
오직 청백뿐이다

지를 통해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으로 꼽은 이유를 한 눈에도 알 수 있었다. 도산서원을 돌아보며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12개의 목조건물 중 퇴계 생존 시에는 4개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관직에 나간 수많은 제자들과 왕들이 도산서원의 증축을 수없이 권하였지만 퇴계 선생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특히 지금도 선생이 직접 거처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의 한켠에는 나무로 대충 덧대어 중간 중간 구멍이 있는 툇마루가 있으며 그 앞에는 정우당이라는 아주 조그만 연못이 있다. 퇴계선생은 진흙탕에 살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속은 비고 즐기는 곧고 향은 멀수록 맑다하여 꽃 중의 군자인 연꽃을 이곳 정우당에 심고 가까이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청렴한 마음은 군자의 생각과 생활에 향기처럼 배어 있는 숨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족시인, 저항시인 이육사문학관**

숙연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다음 행선지인 이육사문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퇴계의 14대손으로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열단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시를 쓴 민족시인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청포도, 광야, 절정 등 시험에 잘 나오고 이육사(李陸史)라는 이름이 일제에 의해 투옥 되었을 때의 수감번호인 264번을 딴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일본 유학시절 관동대지진을 겪으며 일본인들의 잔악한 동포 학살을 보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점, 광복 1년여 반을 앞두고 한중의 재가 되어 고국에 돌아온 그의 생애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혹자는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대부분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불후의 명작들을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남겼을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며 밤에 민족을 위한 저항시를 써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마음을 올리는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생각과 행동, 사상과 실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가슴에 되새기며 안동에서의 호젓하고 숙연한 시간을 뒤로 하였다.

이육사 시집을 다시 꺼내어 들고 되새기며 모든 작품들이 훌륭하지만 너무도 익숙한 그의 시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한기인의 힘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전력기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그의 글을 빌어 바래본다. **ES&C**

曠野(광야)

- 이육사 -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청백리 연수 참가자 한 줄 선감

- 계속제어설계그룹 강동파 차장 하루 동안의 일정을 알차게 활용한 프로그램이었고, 문화해설사들의 훌륭한 설명으로 이튿날에 도움이 되었다.
- 신성장기술전략실 국경철 차원 선현의 발자취를 통해 청렴과 선비정신을 통하여 바르고직한 공직자상을 생각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노사협력실 김명희 부장 우리의 전통과 조상의 얼이 서린 곳을 찾아 배워야 할 점을 스스로 느끼 시간이어서 유익했다.
- 계약실 김유수 과장 퇴계 이황을 포함한 여러 위인을 통해서 청렴 및 올바른 의지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였다.
- 안전해석그룹 김택모 부장 도산서원 입구 나무 그늘 아래서 바라본 강변 전경이 너무 포근하고 좋았다.
- 기계기술그룹 김형석 부장 현대의 청백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장소가 프로그램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 원자로사업관리실 서길수 부장 우리 조상들의 근면하고 청렴한 생활상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원자력사업처 흥민기 차장 그동안 잘 몰랐던 이황 선생과 이항 선생의 인물과 업적을 알수 있었고, 청렴 함양의 시간을 가질수 있어 좋았다.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홍순원 부장 주위의 알지 못했던 곳을 방문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돌아볼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계속제어기술그룹 홍태희 부장 공직자로서의 '선현의 청렴 및 선비정신'을 새롭게 체험할수 있어 유익했다.





식사 자리에서 동네 길냥이에게 준다며  
먹다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을 칭송이라도 하듯  
모두들 짜지 않고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거두어 줍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몇 번의 선심이  
오히려 야생의 삶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애완용으로 오리를 길렀습니다.  
어느 날 비좁은 공간에 사는 게 불쌍해서  
넓은 호수로 가서 마음대로 헤엄치라고 풀어 놓았더니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리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오리는 날개의 움직임을 통하여  
기름샘에서 물에 젖지 않는 물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두어 두고 먹이를 주고 있었으니  
애써 날개 피덕이며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서운 적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었으니  
기름이 분비되는 기관이 퇴보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익숙함이란 가깝고 친숙하다는 긍정적 의미 보다는  
발전이나 노력이 없는 안일한 태도로 부정적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친 경우라 할까요.  
스스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오리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두 적용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 의미가 담겨있는 경북내륙 산업연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북내륙 산업연수에 다녀왔다. 26가족 64명이 참여하여 정말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한기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친근감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참여인원 모두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보람된 행사였다. 특히 부모님과 아이들을 동행한 가족들은 자식과 남편 그리고 아빠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첫째 날

한기가족을 태운 버스는 용인 사옥에서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여 10시 30분 김천본사에 도착했다.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우리 회사를 견학했다. 경북내륙 산업연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한 버스 3대가 11시 30분경 출발했다. 김천에서 1시간 정도 달리니 국내 워터파크의 효시로 꼽는 창녕 부곡하와이에 도착했다. 장맛으로 유명한 창녕의 화왕산 장마을에서 점식식사를 했다. 목련꽃이 만개한 식당주변에서 한기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후 다음 기착지인 통영으로 이동했다. 질푸른 바다가 역사의 배경이 된 통영에 도착하여 미륵산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했다. 이슬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라 1시간 가량 통영 시가지와 한려수도 조망했다. 미륵산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길이 1,975m로 우리나라 관광 케이블카 중에서 가장 길다. 곤돌라 수십 개가 연속적으로 탑승객을 실어 나르는데, 케이블카에서 내려 약 15분 정도 오르면 미륵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발아래 동쪽엔 통영시가 서쪽엔 사랑도와 우도, 연화도, 매물도 등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섬들이 바다에 떠 있다. 발아래 펼쳐진 통영의 탁 트인 풍경과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있는 한기가족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니 멋진 작품이 나와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진으로 한기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것 또한 너무 멋진 일이 아닌가! 우리는 한국의 나폴리 통영 앞바다가 한 눈에 바라보이는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 여장을 풀고 싱싱한 수산물로 요리한 맛있는 해물탕에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면서 옛적 아내와 연애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어느덧 정년퇴직을 앞두고 경치 좋은 곳이나 유람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일 게다. 직장 생활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준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통영 앞바다에 노을이 진다. 편안한 숙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하루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밤 11시까지 정리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하고 일과를 마무리 하니 피곤함에 자꾸 잠이 쏟아진다.





**둘째 날**

통영 앞바다의 장엄한 해돋이 정경을 담기 위해 오전 6시에 일어나 리조트앞 조그마한 바위섬에 올라 떠오르는 푸른 물에서 쭉 솟아오르는 황금빛 붉은 해를 사진에 담아냈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산도 유람선에 승선하여 이순신 장군의 흔이 서려있는 한산도 제승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뱃길에 갈매기와 바다 내음이 물씬 나는 아름다운 광경을 추억에 새기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제승당에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이순신 장군의 낯을 기리고 한산도를 거니는 한기가족의 표정과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고 온 전기계측기술그룹의 이 부장,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정하게 다니는 부부, 아이 둘과 친정 엄마를 모시고 온 인사처 최 과장 등이 정겨운 모습을 관찰하고 추적하여 사진의 피사체에 담느라 무척 분주하였다.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의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이곳을 본거지로 삼아 당포승첩 후 왜적과 세 번째로 접전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해상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의 사기와 전의에 큰 타격을 준 곳이다. 현재의 건물은 193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경내에는 유허비, 기념비, 귀선각, 한산정, 대첩문 등이 있으며, 1976년 성역화 작업으로 정비되었다. 충무공이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한산도 제승당을 뒤로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군침이 돌면서 시장기가 발동했다.

통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벽화마을 동피랑벽화마을을 찾았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벚꽃과 그림을 온통 벽에 그려 놓았으니 볼 것이 많았다. 중앙시장에서 3분정도 오르막길을 오르면 본격적인 벽화마을이 시작된다. 추억의 물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중간중간 예쁜 그림 주변에는 카페도 자리하고 있었다. 약 10분쯤 더 오르면 동피랑의 정상 동포루에 도달한다. 동포루에서는 강구항의 멋진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동양의 나폴리답게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정말 멋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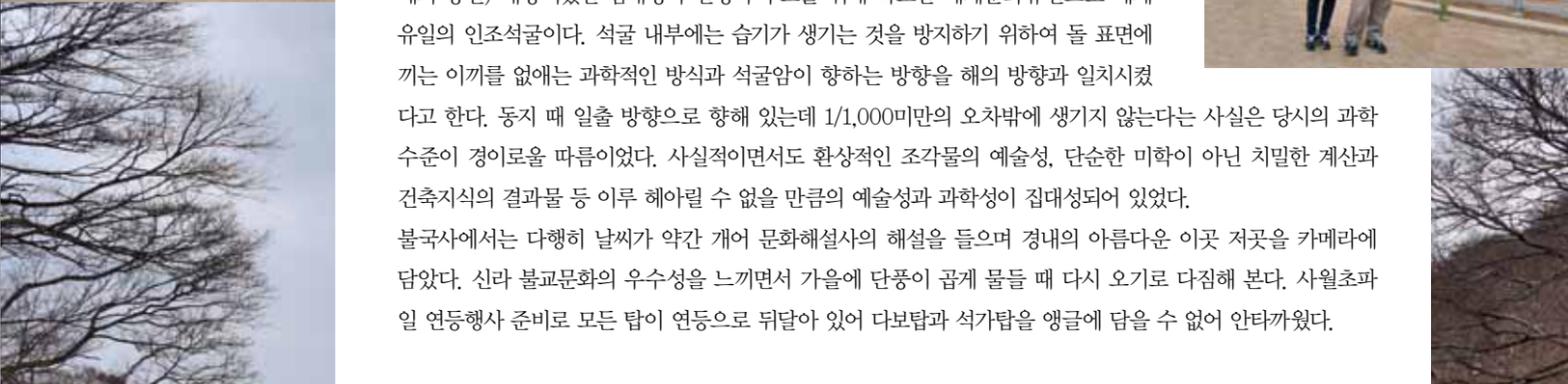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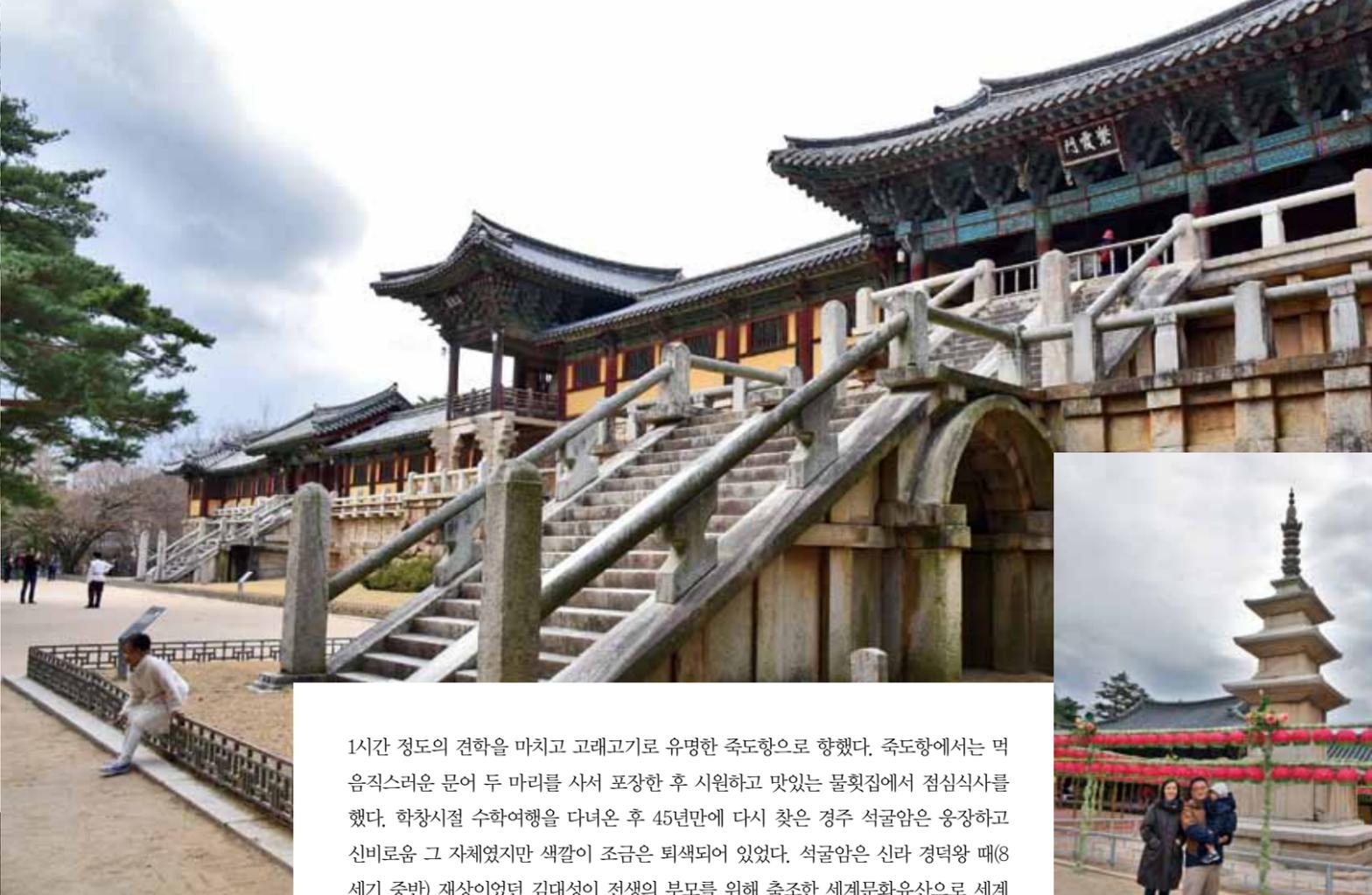


동피랑벽화마을에서 내려와 중앙시장 회덮밥집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했다. 전국에서 수산물에 싱싱하기로 유명한 중앙시장 어시장을 구경하고나니 온몸이 노곤하여 버스에 몸을 맡긴 채 잠이 들고 말았다.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경주교촌한옥마을이다. 경주 교촌은 신라 신무왕 2년(682년)에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던 곳이다. 그곳에는 중요민속자료인 경주 최씨 고택과 중요무형문화재인 경주교동범주가 자리잡고 있었다. 교촌마을은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경주최부자의 얼이 서린 곳이다. 이곳은 원효 대사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은 신라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서려 있는 계림과 신라 제17대 내물왕릉, 경주향교, 김유신 장군의 집터에 있던 우물 재매정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경주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고색창연 식당에서 떡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후 10분거리에 위치한 경주한화리조트로 이동하였다. 경주 중심에 위치한 리조트는 유적지를 관광하기에 이동이 편리하고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저녁식사는 한정식뷔페였고, 아침식사는 양식뷔페로 여러 종류의 고급스러운 음식이 구비되어 있었고 맛 또한 일품이었다. 경주에서는 한기가족의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일정을 마무리 했다.





**셋째 날**  
 아침에 비가 오고 있었다. 비 내리는 경주의 사진을 담을 수가 없어서 늦게까지 휴식을 취했다. 포스코로 가는 길은 잔뜩 흐린 날씨였다. 포스코는 1968년에 대한중석을 모태로 하여 포항제철로 창립되었다. 1987년 광양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었고, 1992년에 4반세기 대역사(조강연산 2,080만t)를 완성했다. 포항제철소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며,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소의 2배 넓이를 자랑하는 세계 3위 종합철강업체다. 제철소 내 모든 곳이 보안지역으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차로 공장 내부를 견학하고 압연공장은 직접 관람하였다.



1시간 정도의 견학을 마치고 고래고기로 유명한 죽도항으로 향했다. 죽도항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문어 두 마리를 사서 포장한 후 시원하고 맛있는 물횃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45년만에 다시 찾은 경주 석굴암은 웅장하고 신비로움 그 자체였지만 색깔이 조금은 퇴색되어 있었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때(8세기 중반)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축조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 유일의 인조석굴이다. 석굴 내부에는 습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 표면에 끼는 이끼를 없애는 과학적인 방식과 석굴암이 향하는 방향을 해의 방향과 일치시켰다고 한다. 동지 때 일출 방향으로 향해 있는데 1/1,000미만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시의 과학 수준이 경이로울 따름이었다.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조각물의 예술성, 단순한 미학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건축지식의 결과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예술성과 과학성이 집대성되어 있었다. 불국사에서는 다행히 날씨가 약간 개어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경내의 아름다운 이곳 저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신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느끼면서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들 때 다시 오기로 다짐해 본다. 사월초파일 연등행사 준비로 모든 탑이 연등으로 뒤달아 있어 다보탑과 석가탑을 앵글에 담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넷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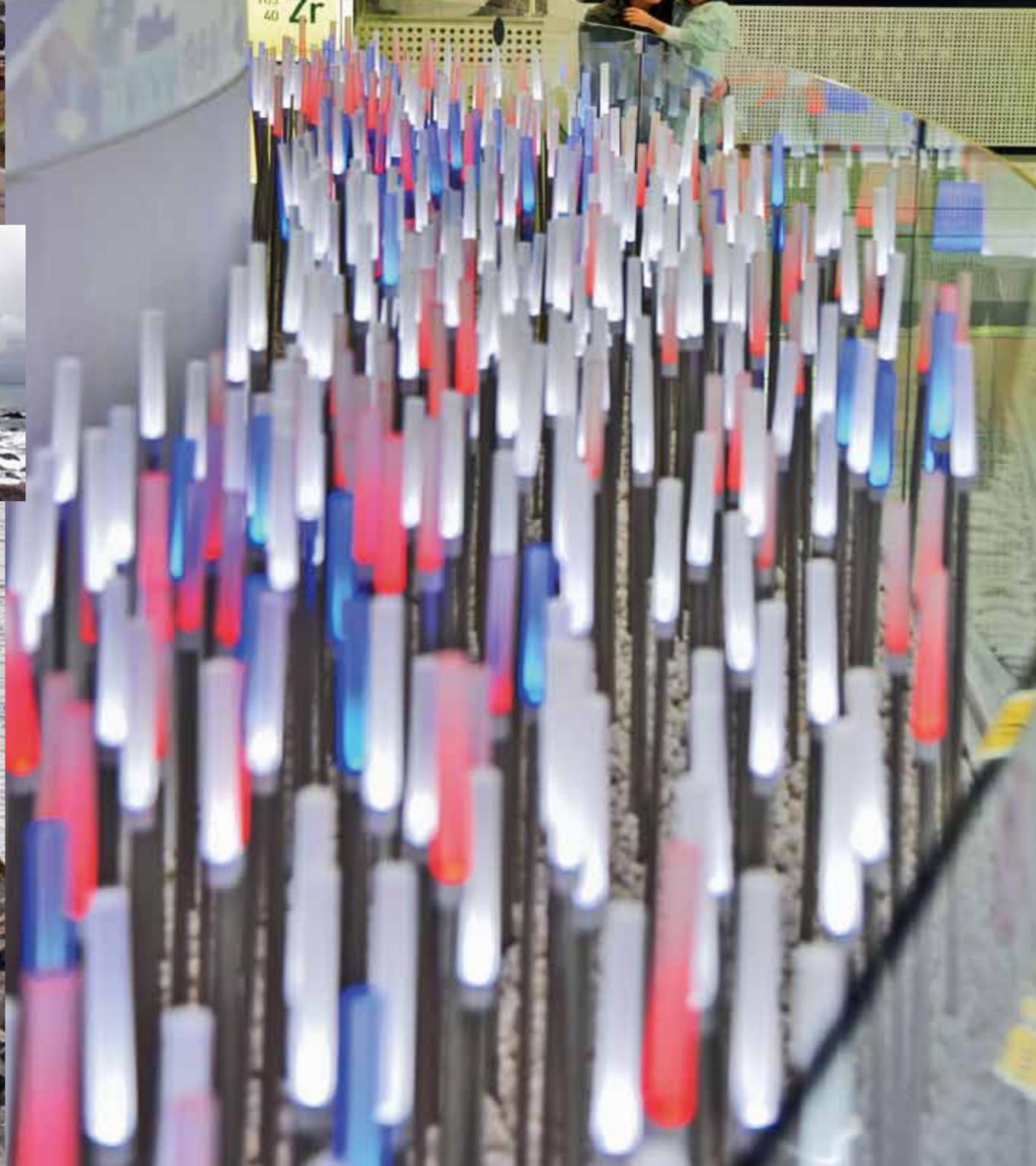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다. 맛있는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첫 코스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의 해안 파도소리 길을 따라 위치한 주상절리 트레킹이었다.

무려 10m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들로 길이는 약 1.7km에 달하는 주상절리에서 기대 이상의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바닷가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먹구름을 뒤에 안고 포즈를 취해주는 한기가족 덕분에 대작을 손에 쥐게 되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다만 아쉬움이라면 부채꼴 주상절리를 관망할 수 있는 곳에 높은 전망대를 짓고 있기에 접근을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줬다.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어 있고 약 2,600만 년에서 700만 년전에 한반도 내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 코스인 월성원자력발전소 홍보관을 견학했다. 우리 회사의 설계로 만들어낸 가압중수로 발전소라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설명에 한기가족들은 뿌듯함을 느꼈고, 가족들은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경주 역사 유적지구 대릉원 주변 한식집에서 쌈밥정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벚꽃이 만개한 첨성대와 대릉원을 카메라에 담던 중에 곱게 한복으로 차려 입은 선남선녀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행운이! 무작정 그 연인에게 다가가서 길거리 모델을 부탁하였다. 선뜻 응해 주는 연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벚꽃길 아래 첨성대를 멀리 배경으로 담고 대릉원을 배경으로 셔터를 눌러대니 손가락이 절로 행복해진다.

경주를 뒤로하고 버스에 오르니 나의 회사생활 마지막 해, 마지막 연수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할말을 찾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에 창 밖만 보고 있었다. E&C



# C ommunication

“생선?”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 하는 동안  
“일용 생파”라는 문자가 뒤따라옵니다.  
그때서야 ‘생선’은 생일 선물이고  
‘생파’는 생일 파티의 줄임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태어나는 낯선 단어들,  
이해 불가한 줄임말이 점점 심각하다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이 파괴되는 것 같아 수궁이 쉽지 않네요.

개개인의 취향과 시대를 반영하는,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지는 삶의 방식들,  
최소한의 것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비롯해  
편안함과 아늑함의 ‘휘게 라이프’  
요즘은 옐로(YOLO)족이 내일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네요.  
인생은 한번뿐이다.(You Only Live Once)  
내일보다는 오늘에 주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같은 맥락으로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미래 대비 없이 막살자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매달리기 보다는 매순간 열정을 다하며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네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존재하는 것,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이웃도 돌아볼 수 있듯  
내 눈에 물이 넘쳐흘러야 이웃 눈에도 들어갑니다.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휘게(hygge) 라이프 10계명 중에서-

# 태고의 신비가 간직된 제주 동부 일주



관광지가 많고 개발이 된 중부와 서부에 비해 제주의 동부는 한산하다. 한라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린 지형은 바다와 가까워질수록 평원을 이루고, 제주의 자연과 민속이 그 속에 어우러져 보존가치가 높다. 제주의 풍광을 말할 때 바다와 산간이 으뜸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으뜸과 화산암이 그 두 번째다. 제주의 동부는 이 모든 요소들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



01 비자림. 매표소를 지나면 기분 좋은 초록 숲이 나타난다 02 비자림에서 가장 오래된 비자나무 03 왼쪽의 선들이 선녀바위다

## 여름의 그늘, 제주의 원시산림, 비자림

바다 못지않게 제주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한라산 중산간지대의 울창한 수림이다. 구좌읍 평대리에 자리한 비자림 숲은 수령이 300~600년 된 비자나무 2,500여 그루가 모여 사는 숲이다. 단일 군락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발생 숲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보존가치가 높다. 붉은 화산흙이 깔린 입구를 따라 숲에 들어서면 아왜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매죽나무, 덧나무 등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무들이 비자나무와 어우러져 숲터널을 이룬다. 숲의 바닥에는 고사리를 비롯한 양치식물과 덩굴식물이 양탄자처럼 깔려있어 원시우림의 신비로움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방된 산책로는 느리게 걸어도 한 시간 가량이면 족하다. 오르고 내리는 길이 거의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비자나무는 주목과에 속하는 나무로 암수





04

04 울창한 비자림이 하늘을 가린 아늑한 숲길 05 큰 나무의 등지에서 자라는 양치 식물 06 초입에 승마장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07 성읍민속마을의 음성 08 가뭄에 빗물을 받던 장치 09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섭지코지 산책길

판그루 나무다. 1년에 겨우 1.5cm 자라고 15년이 넘어야 열매를 맺는다. 4월부터 향이 짙은 꽃이 피고 가을에 자색 열매가 떨어진다. 비자열매는 기름기가 많고 뚝은맛이 나는데, 특히 제주 비자열매는 구충제로 약효가 특출하다. 재목도 아름다워 고급가구의 제작에 사용되며 제주의 중요한 토산품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비자림 내 숲속에는 진귀하고 향이 그윽한 꽃을 피우는 풍란이 자라는데, 하도 진귀해서 선택된 사람의 눈에만 띈다고 하니 산책길에 찾아보시기 바란다.

제주에 오면 오름을 보라-다랑쉬오름과 용눈이오름

제주도의 진산인 한라산은 36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오름들을 거느리고 해안을 향해 높이를 낮추며 제주의 땅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의 제주도 지형이 만들어진 것은 제4기 화산활동기로, 제3기 한라산이 솟은 이후 계속된 후화산 활동시기에 해당한다. 연대로는 10만 년 전에서 2만5천 년 전까지이며,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 수많은 기생화산, 즉 오름이다. 오름은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 오름 주변에 마을이 들어섰고, 오름에 기대어 밭을 일구고 목축생활을 하였으며, 신앙의 터자리로 신성시하는 한편, 죽어서는 오름에 뼈를 묻었다. 제주 북쪽과 동쪽으로 오름들이 밀집되어 있다. 개인적으



06 07



제주 동부의 해안 대표명소, 섭지코지

코지는 곳의 제주도 언어다. 섭지코지는 섭지곶,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특 튀어나온 자루모양의 지형이다. 섭지는 협지, 곧 좁은 땅이라는 말이다. 이곳에 자리한 신양해수욕장은 서핑을 즐기기에 알맞은 수심과 수온, 풍향을 지닌 곳으로 유명하데, 이 해수욕장을 지나면 너른 풀밭의 언덕 하나가 나온다. 언덕 위에는 봉수대의 일종인 연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연대 위에 올라서면 한라산과 다랑쉬오름, 성산일출봉이 아름답게 보이고, 연대 앞 해안절벽 가까이에는 서귀포의 외돌개를 닮은 선녀바위가 절경을 이룬다. 선녀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온다. '하늘나라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곤 했는데, 동해용왕의 아들이 선녀들의 나신에 반해 훔쳐보려 다가가자 놀란 선녀들이 옷



05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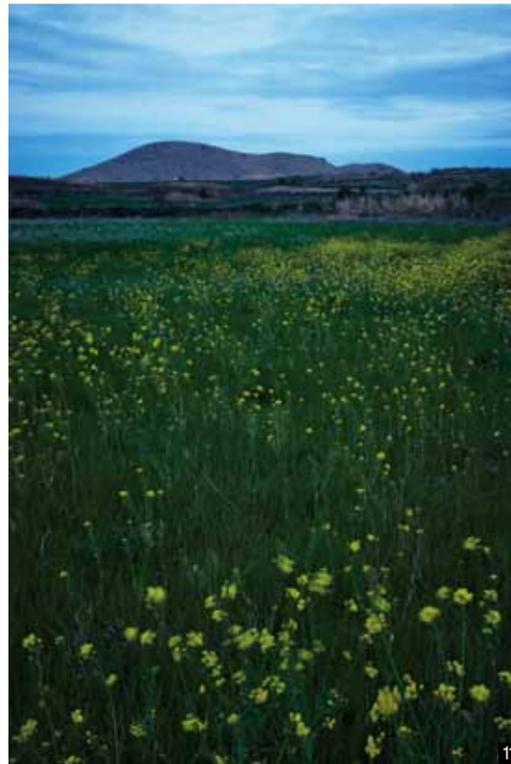
10

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하늘로 올라갔다. 옥황상제는 선녀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금족령을 내렸다. 선녀들을 보지 못하게 된 용왕의 아들은 상사병이 걸려 몸져누웠다. 점쟁이가 이르기를 “선녀들이 내려왔던 자리에서 매일 밤 백일기도를 드리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99일 밤 백일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백 일째 되는 날,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바다가 몹시 거칠었다. 동이 틀 무렵에서야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달빛 같은 수레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용왕 아들은 수레 끝을 잡으려고 바다를 박차고 뛰어올랐으나 그만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후 그는 선돌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선녀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의 풍속-성읍민속마을과 혼인지**

표선읍 성읍리에 자리한 성읍민속마을은 제주 동남부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옛 제주마을이다. 조선 세종 5년(1423)부터 1914년까지 약 500년 동안 현청이 자리했고, 아직까지도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생활상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마을 한복판에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그루와 팽나무 두그루가 흰칠하게 서있는데, 느티나무는 천년, 팽나무는 600년 동안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성읍마을에서는 봄에 이 느티나무에 싹이 트는 것으로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성읍마을은 조선시대 때 정의현으로 불리었으며, 제주 동부의 행정, 군사, 교육의 중심지였다. 마을을 둘러 정의읍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원형이 비

10 바다와 초지가 어우러진 성산일출봉 풍경 11 아담한 두 봉우리로 이어진 능선이 용눈이오름이다 12 광치기해안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11

교적 잘 보존된 성으로 알려져 있다. 성으로 드나드는 성문마다 돌하르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의 하르방은 제주의 다른 하르방과 달리 동글넓적하고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정의고을표’ 하르방으로 분류된다. 성 안에는 현감이 집무를 보던 현청사 일관현과 성황당 역할을 하던 할망당, 향교 등이 있고, 제주사람들의 가옥구조와 풍속을 엿볼 수 있는 민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온평리의 혼인지는 드넓은 암반지대에 조성된 호수인데, 제주의 개벽신화에 등장하는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삼성혈에서 솟아나온 세올나가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를 맞아 혼례를 치른 곳이라 전해지는 곳이다.

**제주 동부 여행 tip**

제주 동부여행은 성산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동부 쪽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제주시에서 버스가 자주 들어오고, 일반적인 여행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동부에서 제일 유명한 성산일출봉이 성산읍에 있으며, 우도로 출발하는 배도 성산항에서 뜬다. 올레길의 출발점인 말미오름과도 가깝다. 종달리해안과 광치기해안, 섭지코지로 이어지는 해안길은 굳이 올레길 여행자가 아니라도 잠깐 걸어보면 좋은 해안산책길이다. 어디든 풍경이 아름답다.

**제주 동부의 여행 일정**

성산항 - 비자림 - 다랑쉬오름 - 용눈이오름 - 성읍민속마을 - 혼인지 - 섭지코지 - 광치기해안 - 성산일출봉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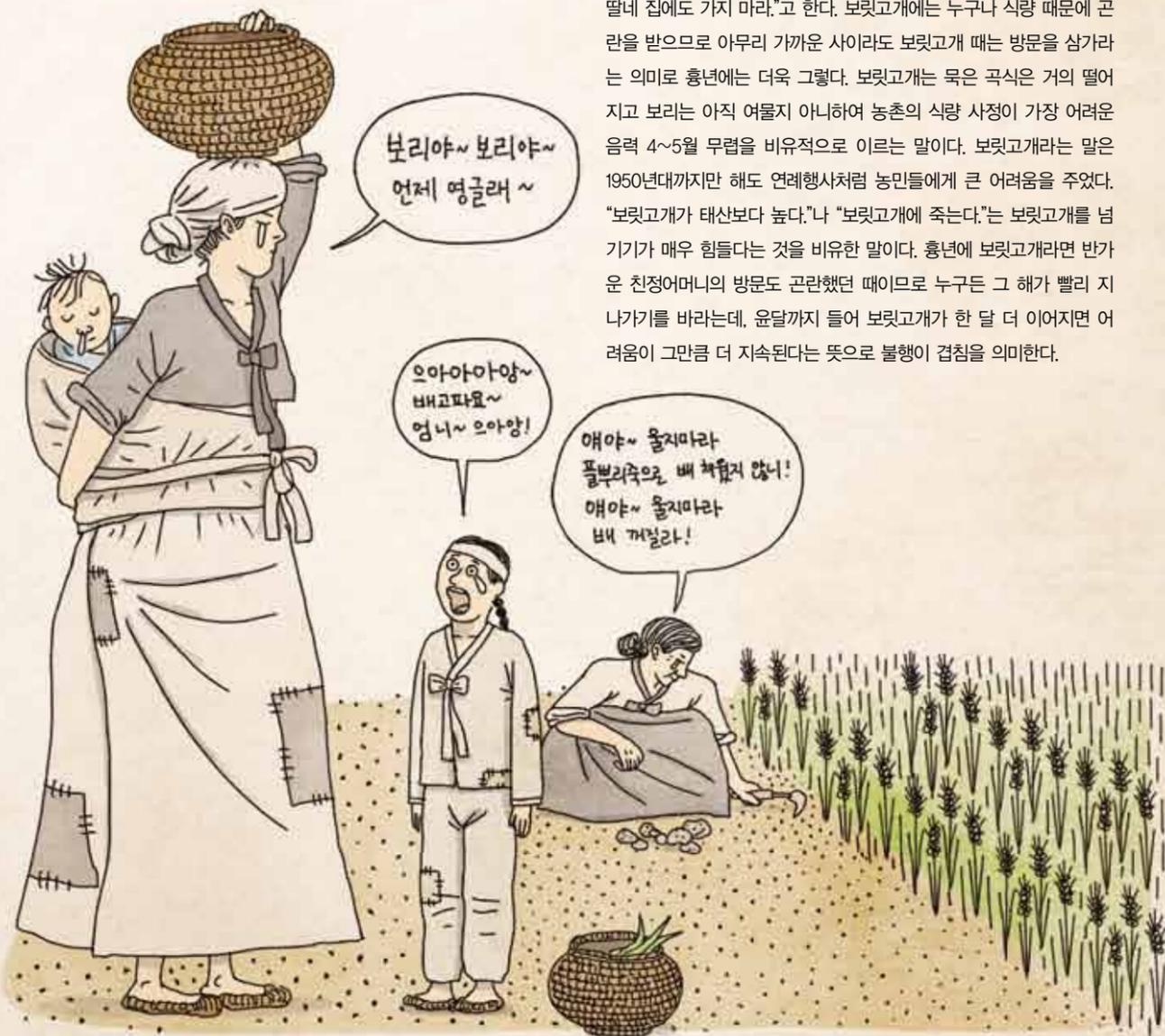


12

# 보리 흉년에 윤5월이 겹치니 농사짓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심하다

### ◆ 춘궁기의 어려움

평소에도 춘궁기(春窮期)에는 살기가 몹시 어려워 “보릿고개 때에는 딸네 집에도 가지 마라.”고 한다. 보릿고개에는 누구나 식량 때문에 곤란을 받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릿고개 때는 방문을 삼가라는 의미로 흉년에는 더욱 그렇다. 보릿고개는 목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음력 4~5월 무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례행사처럼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나 “보릿고개에 죽는다.”는 보릿고개를 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흉년에 보릿고개라면 빈가운 친정어머니의 방문도 곤란했던 때이므로 누구든 그 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윤달까지 들어 보릿고개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어려움이 그만큼 더 지속된다는 뜻으로 불행이 겹침을 의미한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영영일기(嶺嶺日記)  
시 기 : 1751년 6월 26일 ~ 8월 22일  
인 물 : 조재호  
주 제 : 지방행정, 관찰사, 농업  
장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흉년에 윤달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 조재호 경상감사가 도임했던 1751년이 딱 그런 해였다. 평소에도 춘궁기인 4~5월을 넘기가 어려운데 보리 흉년이 겹친 가운데 윤5월이 끼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보리 흉년 때 피곤함에 지들면서 간신히 경작하여 날마다 곡식 익기만을 기다렸건만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추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다음해에 닥칠 근심과 재앙을 생각하면 더욱 끔찍할 따름이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 물 부족 문제, 맹그로브·딱정벌레에서 답을 찾는다!

‘잡초라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뭔가를 배울만한 장점이 있다는 의미다.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탄생했다. 청색기술이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생명체의 효율성을 모방하거나, 이들로부터 영감을 얻자는 취지로 개발된 기술이다. 과학자들은 조만간 인류에게 닥칠 물 부족 문제의 해답을 생명체에서 찾고 있다.



## 맹그로브 뿌리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해수담수화 기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해수담수화’ 기술을 꼽는다. 해수담수화 기술이란 바닷물에서 염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뒤 이를 담수(淡水)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증발 방식’이나 ‘역삼투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방식 모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담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올라가게 되므로 기술의 상용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포항공대 연구진이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면서도 효율은 기존 기술에 뒤지지 않는 신개념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신기술은 해안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인 맹그로브(mangrove) 뿌리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자연 모사형 해수담수화 기술이다. 맹그로브의 뿌리는 나트륨 이온을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의 약 90%를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그로브의 뿌리는 나트륨 이온을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의 약 90%를 걸러낼 수 있다. (출처: wikimedia)

염생식물이란 바닷가 주변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염분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살 수 없지만, 염생식물은 뛰어난 여과 능력을 갖고 있어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도 서식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포항공대 연구진은 맹그로브 뿌리를 모방한 필터를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기존 해수담수화 기술과 유사한 96.5%의 염분 제거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기웅 연구원에 따르면 맹그로브 뿌리를 모방한 해수담수화 여과막은 제작공정도 간단하다. 또한 작은 규모의 설비로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해수를 담수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딱정벌레 등껍데기를 이용한 안개 응축기술

곤충에게서 배운 수분포집 기술도 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는 주위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안개로부터 수분을 모아, 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게 진화한 덕택이다. 딱정벌레가 수분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차가운 등껍데기에 있다. 차가운 맥주병을 실온에 꺼내 놓았을 때 병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과 같이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딱정벌레의 차가운 등 위에 닿으면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캐나다의 비영리 기관인 포그퀘스트(FogQuest)는 이 같은 딱정벌레의 안개 응축기술을 활용해 주위에 호수나 강이 없는 메마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식물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과 비슷한 재질의 그물을 통해 공기 중의 수분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포집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스템 효율이 좋지 않다는 단점은 있다. 특히 안개가 거의 없는 날에는 이용 가능한 물의 2% 정도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분을 포집하기 위해 펼쳐놓은 포그퀘스트의 수직 체논. (출처: fogquest.org)

이에 미 MIT대의 연구진과 칠레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건조 지역에서도 수분 포집량을 늘릴 수 있는 개선된 안개 응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다. 구식 시스템보다 효율이 10% 이상 향상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안개 포집 시스템은 고효율의 수직 체논(mesh)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그물을 이루는 실의 크기와 구멍의 간격, 그리고 실의 코팅 방식에 따라 수분 포집량이 달라진다는 것이 MIT대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렇듯 자연은 위대하다. 다른 행성에 탐사로봇을 보내고, 생명체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자연이 알려준 경이로운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E&C

# Culture

## Festival

### 포항국제불빛축제 2017

기간 : 7월 26일 ~ 7월 30일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95(두호동)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는 해마다 대표적인 여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가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제철소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

미지를 테마로 지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 불꽃쇼를 가진 것이 시작이다. 이후 매년 여름 휴가피크철인 7월말~8월초경 국제규모 축제행사로 확대됐고 축제콘텐츠도 단순한 '불꽃' 중심에서 탈피, 산업과 문화적 요소를 융합해 다채롭게 펼쳐는 화합의 축제다. 올해는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을 비롯 시내전역에서 포항만의 '불과 빛'을 만날 수 있으며, 형산강과 영일만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만발의 불꽃이 아름답게 펼쳐져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http://phcf.or.kr>

## Exhibition

### 모리스 드 블라맹크展

기간 : ~ 8월 20일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야수파의 주역, 블라맹크의 국내 첫 개인전

프랑스에서 태어난 블라맹크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프로 사이클 선수로도 활약했는데, 190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고흐의 영향을 받아서 생생한 칼라와 자유분방한 필치(brush stroke)가 특징인 작업을 했다. 서양미술사에서는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의 주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작업을 하다가 1920년대에 이르러 자 신만의 독특하고 극적이며 강력한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속도감 있는 필치와 중후한 색채를 사용하여 무겁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창조하였다. 블라맹크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에는 70점의 유화와 리토그래프 작품이 소개된다. 그리고 오리지널 작품의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대형 미디어 체험관이 설치 된다. 오리지널 작품의 감동과 미디어 체험관의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리스 드 블라맹크전>은 이 여름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다.

[www.sacticket.co.kr](http://www.sactick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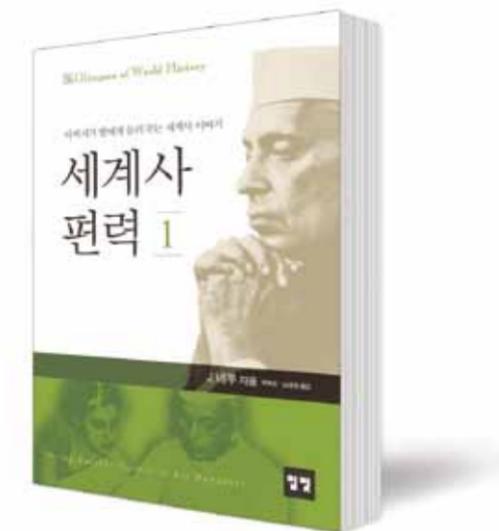


## Book

### 세계사 편력 1 :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 주는 세계사 이야기

아버지 네루가 13세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글을 엮은 책.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을 하다가 여섯 차례나 투옥되었던 네루는 약소민족도 세계사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딸에게 세계사 편지를 쓰기 시작하여 3년 동안 총 196편의 옥중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글들은 우선 세계 역사를 서구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딸에게 지도자의 길이 무엇인지 자상하게 설명하여 역사의 올바른 리더십을 키우도록 북돋아 준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균형 잡힌 역사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글들로 엮여졌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세계사,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계역사 무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 "역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고전이다.

자와할랄 J. 네루 저 / 광복희, 남궁원 공역 | 일빛



## Movie

### 스파이더맨 : 홈커밍

마블 히어로의 세대교체!

"어벤져스가 되려면 시험 같은 거 봐요?"

'시빌 워' 당시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발탁되어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 그에게 새로운 수트를 선물한 '토니 스타크'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며 조언한다. 하지만 허세와 정의감으로 뚝뚝 똥친 '피터 파커'는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 '벌쳐'(마이클 키튼)에 맞서려 하는데...

아직은 어벤져스가 될 수 없는 스파이더맨  
속제보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스파이더맨  
그는 과연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상영중



# KEPCO E&C News



## ● 2017년도 제1차 Meister of Engineers 선정

회사는 6월 5일 2017년도 제1차 Meister of Engineers로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왕순면 차장을 선정하고 순금명판 기념패를 수여했다. Meister of Engineers는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로 2016년 4월 첫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번 1차 선정을 포함하여 총 5회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은 각 본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성적, 여학성적, 청렴등급,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의 기술 및 창의 혁신을 선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제1차 Meister of Engineers로 선정된 왕순면 차장은 “회사에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은데 대표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과거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를 2년간 수행하며 고생했던 일이 무엇보다 떠오른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 창의혁신리더그룹 ‘더새롬’ 아카데미 개최

- 현업에 적용 가능한 조직혁신 방안 탐구 -

회사는 지난 5월 17일 대구 스파밸리리조트에서 창의혁신 리더그룹 ‘더새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회사는 지난 3월 창의와 혁신의 기업문화 정립과 소통경영을 위해 제2기 창의혁신 리더그룹 ‘더새롬’을 구축했다. 이번 ‘더새롬’ 아카데미는 조직 혁신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의 일환으로 경영현황 설명과 외부초청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 혁신 방안을 직접 도출했다. 또한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계층간 갈등해소 등 조직 내 소통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더새롬’ 아카데미를 통해 △기술역량 제고 △미래먹거리 창출 △동반성장상생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CEO와의 대화, 경영회의 참관 등을 통해 경영진과 소통함으로써 회사 현안사항 해결과 비전달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 ● ICAPP 2017에서 한국 원전 우수성 홍보

- 한국의 원전 개발 역사 및 미래비전 발표 -

제16회 원자력산업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ICAPP 2017)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ICAPP는 원자로 기술개발과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산학연의 기술과 경험교류를 위해 2002년 미국원자력학회(ANS) 주관으로 창립되었다. ICAPP 2017은 “A New Paradigm in Nuclear Power Safety”를 주제로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현황 및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전망 △새로운 원전 설계/건설 △핵주기 및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후쿠시마 보고서 등을 주제로 하는 본회의 4개 세션과 기술회의 10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계 각국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은 본회의에서 “New Nuclear Power Reactors under Development in Korea”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개발 역사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발표에서는 현재 개발 완료되어 건설 예정인 APR+, 소형모듈원전의 선두주자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으로 최적화 설계를 진행 중인 SMART, 혁신적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i-POWER 및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rototype Gen-IV Sodium-Cooled Fast Reactor, PGSFR)의 주요 설계목표 및 안전성 강화 내용 등이 설명됐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신적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 달링턴원전 1,3,4호기 기기공급사업 착수회의 개최

달링턴원전 1,3,4호기 기기공급사업(원자로부품 : Rings & Sleeves) 착수회의가 지난 5월 29일 캐나다 오크빌(Oakville) SNC Lavalin-Aecon Joint Venture(JV)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원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해 손종주 PM, 마르시 샌더슨(Marcy Sanderson) JV PM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달링턴원전 1,3,4호기 기기공급 사업은 2015년에 수주한 달링턴 2호기 후속으로 2016년 11월 공급제약서를 제출한 후 지난 3월 수주에 성공했다. 납기는 3호기의 경우 2019년 1월, 1호기는 2020년 7월 그리고 4호기는 2021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광원 단장은 회의에서 달링턴원전 1,3,4호기 기기공급사업 수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호기 기기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JV가 보내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회사는 최근 브루스원전(Bruce Power)으로부터 “원자로부품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경험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달링턴원전 기기공급사업을 계기로 캐나다 원전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 2017년도 제5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 5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분	선정자		추천자	
모범직원	한기서비스(주)(사원)	김혜민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원급)	오태경
	원자력기술그룹(원급)	조종연	원자력기술그룹(책임급)	박평원
	플)토목건축기술그룹(책임급)	채종훈	플)토목건축기술그룹(책임급)	맹창환
친절직원	원자력사업처(책임급)	이승현	원자력사업처(책임급)	이철형



#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 원자로설계개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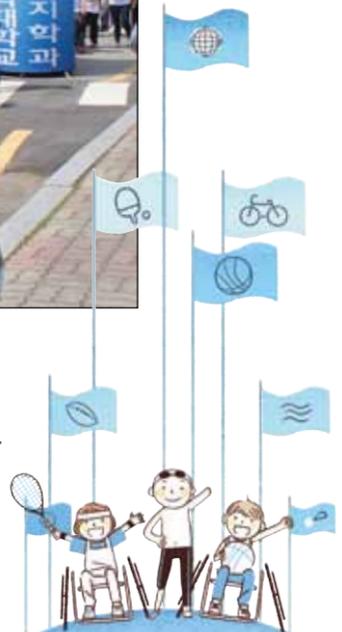


회사는 지난 5월 24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위드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2003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2017년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With 마라톤' 행사에는 원자로설계봉사단원 및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학생, 군인,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여했다. 원자로설계봉사단은 올해로 7번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계룡대 육군 제32사단 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이루어 손을 잡고 침례신학대학교를 출발해 유성구 일대 4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거북이마라톤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비장애인, 군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한 모두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원자로설계봉사단원들은 마라톤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행사 학교 내에서 열린 문화행사로 먹거리부스와 체험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하였다.



## 사우 애경사

### 결혼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김익철 처장 자녀 : 5월 13일 Toronto Canada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신희재 대리 : 5월 13일 부산 골든웨딩타운
- ▶ 계약실 정을수 과장 : 5월 20일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정성환 부장 자녀 : 5월 27일 더베일리하우스 논현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임재영 부장 자녀 : 5월 27일 광주 수아비스웨딩홀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이종범 대리 : 5월 27일 구미 크리스탈웨딩홀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이용희 사원 : 5월 27일 안양 M타워컨벤션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박기만 차장 : 5월 27일 대구 AW HOTEL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최상훈 사원 : 6월 3일 대구 M스타하우스

### 부음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정량원 차장 장모상 : 5월 2일 광주 한국병원
- ▶ 정보보안전략실 오영섭 부장 장모상 : 5월 13일 서울 보라매병원
- ▶ 신재생환경기술그룹 조성필 차장 모친상 : 5월 16일 부천장례식장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김수정 과장 부친상 : 5월 16일 대구전문장례식장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이찬교 부장 부친상 : 5월 20일 봉화 해성병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최기열 부장 장모상 : 5월 20일 부천 성모병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김영목 과장 모친상 : 5월 24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강서상 부장 장모상 : 5월 27일 청주의료원
- ▶ 원자력사업관리실 임태욱 부장 부친상 : 6월 2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 동우회 동정

### 2017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문화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70차 이사회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지난 5월 30일 한기동우회관에서 제7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의결의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추진 계획(안)을 심의 및 수정 의결하고 2017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보고 안건으로 (주)한기서비스의 사명변경 및 사옥이전의 건을 보고하고 원안 접수하였다.

- ▶ 사명변경 : (주)한기서비스 ⇨ (주)그린파워엔지니어링
- ▶ 사옥이전 : 경북 김천혁신도시  
⇨ 서울시 문정동 법원단지 내(02-6281-8015)

### 결혼

- 윤동수 회원 장녀 결혼 : 5월 28일 W 웨딩컨벤션
- 김철수 회원 장남 결혼 : 6월 4일 더컨벤션
- 최영렬 회원 차녀 결혼 : 6월 17일 베르가모
- 조광식 회원 장녀 결혼 : 6월 25일 더파티움

### 부음

- 한민섭 회원 부친상 : 5월 15일 온양 한국병원
- 송필배 회원 모친상 : 5월 20일 서울성모병원
- 신명철 회원 장인상 : 5월 21일 부산 수병원
- 최성표 회원 본인상 : 5월 29일 분당 차병원

###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

– 설치비, A/S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되었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에어컨 품질

A/S 관련 피해가 전체의 48.4%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 ● 특히 ‘냉방불량’ 및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 많아

세부적으로는 ‘품질·A/S(215건)’와 관련하여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 구입 시 설치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 ▲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받아쓰기 시험

Writer 정 세 훈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정연행 차장 자녀(동화초 4)

받아쓰기 시험 칠 때  
나의 가슴이 쪼그라든다.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70점, 쪼그라든 가슴이 조금씩 퍼진다.  
80점,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가슴이 더욱 펴지려 한다.  
90점, 엄마의 웃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100점, 가슴이 완전히 퍼졌다.

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정말 좋다.

시험 잘봐!  
내가 응원할게!



## 소중한 존재

이 세상에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징그럽게 보이는 식물의 털도 애벌레의 색깔도 도마뱀의 모양도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로 인해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는 그것이 되어 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치 부장